

감염원도 접촉자도 낯모름... '조용한 전파' 불안감 고조

코로나19 확진자 9명 쏟아진 광주·전남
시장·목욕탕 등 다중시설 동선 포함
중학생 확진자 공부방 가고 생일파티
확진 판정후에도 마스크 안쓰고 활동

상대적으로 코로나 19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광주·전남에서 주말과 휴일 사이 9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첫 증상부터 확진 판정까지 사흘이 소요돼 접촉자가 적지 않은 데다, 확진자들 동선에 학교, 공부방, 사찰, 대학병원, 전통시장, 온천, 목욕탕, 학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 확진자가 25~26일 연이를 갔던 목포의 한 공부방 등록 학생이 38명에 이르고, 최근 다수 학생이 모여 생일파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를 제외한 60대 자매 가족과 지인 등 7명의 최초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60대 자매 가족 5명과 스님을 포함한 지인 2명 등 모두 7명의 확진자 가운데 첫 증상은 24일 나타났다. 60대 여성인 광주 34번에게서 발열·기침·가래·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언니인 전남 21번 60대 환자도 이 날부터 코감기 증상이 생겨났다. 자매는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34번 환자는 23일 화순전남대병원, 무등산 사찰(광복사), 고려직물 등을 방문했다. 24일 두암한방병원에 갔고, 25일과 26일에는 화순 도곡 온천 등 교외를 방문했다. 26일 오후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35번 환자는 아내인 34번 환자와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친다.
광주 36번 환자는 광복사 스님으로, 주말인 27일

첫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4시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았으며, 신도 등 접촉자에 대한 추적과 검사가 진행 중이다.

37번 환자인 60대 여성은 34번 환자의 지인으로 지난 24일 오전 목욕탕(수궁탕)에 들렀다. 34번과 함께 두암한방병원에 갔다. 27일 서구보건소가 자택으로 가 검사를 진행했다.

전남 21번 환자는 광주 34번 환자의 언니로, 둘은 지난 23일 오전 무등산 광복사를 함께 방문했다. 같은 날 낮 1시 동구 동생집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3시 30분 양동시장에 들렀다 귀가했다. 첫 증상이 나타난 24일은 집에 머물렀고, 25일 오전 10시 목포 부흥동 가족공방에 자차를 이용해 갔다. 오후 4시 하당보건소를 들렀다. 4시 40분께 남편인 22번 환자와 함께 목포기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선별진료소 방문 후 오후 5시께 맑은 샘내과와 실로암약국을 잇따라 방문한 뒤 오후 6시 30분 동부시장에 들렀다가 귀가했다. 남편인 22번 환자는 아내인 21번과 동선이 상당 부분 겹친다.

전남 23번 환자는 60대 부부의 손자다. 목포 하당중 학생인 23번 환자는 22~24일 등교했다.

25~26일은 등교하지 않았으나 공부방 격인 청소년문화공동체, 복싱학원을 연이를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공부방 등록 학생은 38명으로 26일 이곳에서 23번 환자 등 학생들이 생일파티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입국 감염자를 제외한 7명의 확진자들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 다중이용시설을 잇따라 방문했고, 선별진료소 방문 이후에도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1만271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62명 늘어난 것으로 지난 4월 5일 81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 62명은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 22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도심 달리는 전두환 풍자작품 518점 5·18 40주년을 기념해 27일 오후 전두환씨를 풍자한 작품 518점을 실은 트럭이 광주 북구 망월묘지공원을 출발해 동구 5·18민주광장으로 출격해 달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외·타지역 방문 이력 없는 최초 확진자, 감염원 어디?

방역당국 CCTV·휴대폰 GPS 파악 주력

광주와 전남에서 주말과 휴일 이들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최초 감염원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광주와 목포에 거주하는 60대 자매 부부와 10대 손자, 지인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일단 이번 지역사회 감염의 첫 전파자를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광주 34번 확진자)로 추정하고, 추가 동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역사회 감염자 모두 A씨와 직·간접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부터 발열, 기침, 가래,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 A씨는 26일 오후 5시께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후 다음날인 27일 양성 판정을 받고 조선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전인 지난 22일부터 검사 후 격리조치된 27일까지 마스크를 쓰고 활동했으며, 두암한방병원 방문때만 마스크를 미착용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외부활동 과정에서 접촉했던 12명 모두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

다만 A씨와 함께 거주해 온 남편 B씨(광주 35번)와 A씨가 지난 23일 방문한 동구 소재 광복사

60대 스님(광주 36번), A씨의 지인으로 지난 24일 두암한방병원을 함께 방문했던 60대 여성(광주 37번) 등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목포에 거주하는 A씨의 언니(전남 21번)와 언니 남편(전남 22번)도 지난 23일 A씨 집을 방문해 점심을 함께 먹은 후 27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 언니 부부의 10대 손자도 같은 날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A씨 부부와 A씨 언니 부부 모두 최근 해외나 타지역 방문 이력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첫 감염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일단 증상발현 시점과 감염여건 등을 종합해 A씨를 이번 지역사회 감염의 첫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A씨가 다수의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타지역 방문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CCTV와 신용카드, 휴대폰 GPS 내역 등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세부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원이 파악되면 역추적을 통해 추가 감염원을 분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초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깜깜이 확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와대 “국회, 법대로 공수처 출범 절차 지켜야”

권익위원장 전현희·경찰청장 김창룡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결정

청와대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15일에 출범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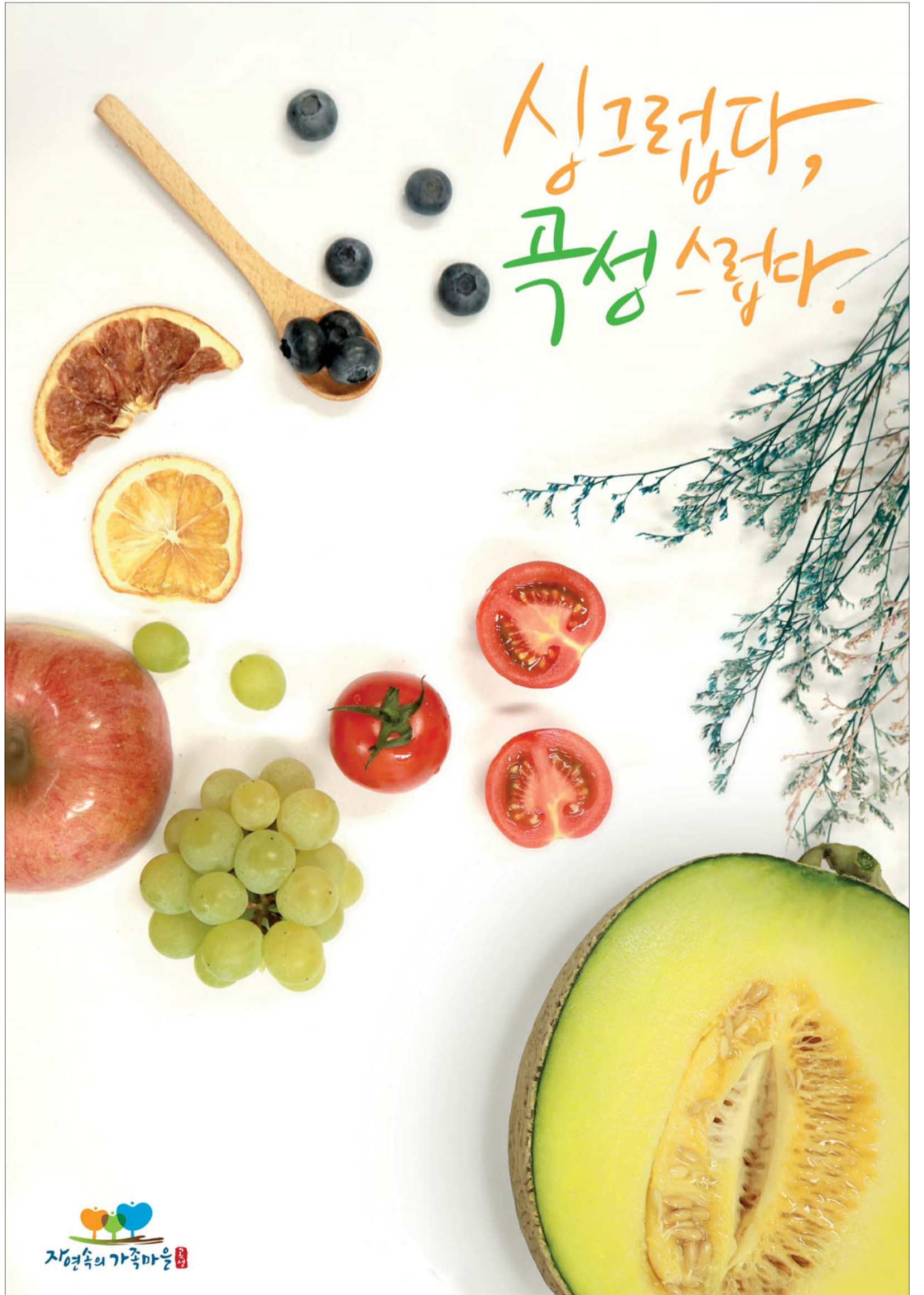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일부 언론이 '공수처 출범 시한을 못박은 것'이라고 보도한 점에 대해, "공수처 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박은 게 아니고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부칙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는 곧 7월 15일이 법에 정해진 공수처 출범 시한이라는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구는 사법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으며,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또 한상혁(59)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전 권익위원장은 치과 의사 출신으로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국회의원(18대·20대)을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가졌다.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학 4기 출신으로,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실 산하 치안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시민사회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전임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약 1년 남겨놓고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발탁돼 위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잔여 임기가 올해 7월 말로 끝남에 따라 연임 인사가 이뤄졌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 위원장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임이 최종 확정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자연속의 가족마을